쿠팡은 17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김아림(32)씨가 경기도 일산1 캠프 리더로 승진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쿠팡 배송캠프의 첫 여성 캠프리더로 기록됐다. 배송캠프는 물류센터에서 온 상품이 고객에게 출발하는 배송센터로, 물류센터와 더불어 쿠팡 로켓배송의 중추 역할을 한다.일산 1캠프는 경기도 고양시를 넘어 파주의 군부대를 포함해 마트나 시장이 없는 산골까지 상품을 배송한다. 김씨는 매일 당일 배송물량의 배송 운영 계획을 도맡는다.만 스무살인 2013년부터 택배배송 기사로 일한 김씨는 2017년 쿠팡 '카플렉스'(자차 배송 아르바이트)로 입사해 2020년 10월 CLS에 정식 입사했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쿠팡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고용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향후 3년간 17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직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쿠팡은 김씨의 인터뷰 영상을 뉴스룸에 공개했다.